



네덜란드 베르트 판 마르베이크 감독

월드컵 네덜란드-스페인 결승전

‘창이나 방패냐’ 감독 지략 대결

‘공격수 출신이 이길까? 수비수 출신이 이길까?’

다양한 공격 포지션을 소화했던 베르트 판마르베이크(58)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과 전문 수비수 출신인 비센테 델 보스케(60)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마지막 지략 대결에 나선다.

결승에 선착한 네덜란드는 준결승전까지 6경기를 치르면서 12골(5실점)을 몰아치며 독일(13골)에 이어 다득점 2위에 올랐다. 반면 독일은 1-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합류한 스페인은 6경기에서 7골(2실점)에 그쳤지만 경기에서는 지지 않는 ‘실리축구’를 구사했다.

이런 특징은 감독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재미있게도 델 보스케 감독이 판마르베이크 감독보다 2살이 많은 형뻬이지만 프로 무대 데뷔(1969년)와 대표팀 데뷔(1975년)는 둘이 똑같다.

판마르베이크 감독은 네덜란드 리그에서만 뛰면서 공격수와 미드필더를 맡았던 평범했던 선수였지만 델 보스케 감독은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 1970~1984년까지 312경기(14골)를 뛰면서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한 스타플레이어 출신이다.

1982년 MVV 마스트리흐트 유소년팀 감독을 맡으면서 사령탑에 데뷔한 판마르베이크 감독은 2002년 유럽축구연맹(UEFA)컵에서 페예노르트(네덜란드)를 우승으로 이끌면서 첫 메이저 대회 우승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지휘봉을 맡았던 판마르베이크 감독은 팀이 중위권에 머물자 2007년 페예노르트로 돌아와 이듬해 KNVB(네덜란드축구협회)컵 우승 트로피를 가져왔고, 2008년부터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네덜란드 축구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

공격수 출신 네덜란드 마르베이크 ‘화끈한 축구’

수비수 출신 스페인 보스케 지지 않는 ‘실리축구’

이런 특징은 감독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재미있게도 델 보스케 감독이 판마르베이크 감독보다 2살이 많은 형뻬이지만 프로 무대 데뷔(1969년)와 대표팀 데뷔(1975년)는 둘이 똑같다.

판마르베이크 감독은 네덜란드 리그에서만 뛰면서 공격수와 미드필더를 맡았던 평범했던 선수였지만 델 보스케 감독은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 1970~1984년까지 312경기(14골)를 뛰면서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한 스타플레이어 출신이다.

공격수 출신인 만루 판마르베이크 감독은 결정력 완성에 공을 들였고, 전방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인 베슬레이 스네이더르(AC밀란.5골)를 파상 공세의 선봉으로 삼으면서 경기당 평균 2골(경기당 평균 0.83실점)의 뛰어난 득점력을 완성했다.

이에 맞서는 델보스케 감독은 준결

공격수 출신 네덜란드 마르베이크 ‘화끈한 축구’

수비수 출신 스페인 보스케 지지 않는 ‘실리축구’

승전에서 철저한 미드필드 장악을 통해 독일의 공격진을 잠재우면서 1골차 승리를 맞췄다. 수비수 출신답게 허리를 강조한 4-2-3-1 전술로 스페인의 80년 만의 결승 진출을 만들어냈다.

미드필드진이 좁은 공간에서도 짧은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수를 괴롭히며 다비드 비야(바르셀로나)가 빈 곳으로 침투해 골을 만드는 게 델 보스케 감독의 주요 전략이다.

1994년과 1996년에 잠깐 레알 마드리드의 사령탑을 맡았던 델보스케 감독은 1999~2003년까지 레알 마드리

드를 지휘하면서 두 차례 정규리그 우승(2000-2001시즌, 20002-2003시즌)과 두 차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1999-2000시즌, 20001-20002시즌)의 성과를 만들며 세계적인 명장으로 이름을 드높였다.

이후 터키 베식타스의 지휘봉을 잠시 잡았던 델보스케 감독은 잠시 야인 생활을 하다가 유로 2008 우승을 이끈 루이스 아라고네스 감독의 뒤를 이어 스페인 대표팀의 감독이 됐다.

이번 월드컵에서 델보스케 감독은 사비(바르셀로나)-사비 알론소(레알 마드리드)-세르히오 부스케츠(바르셀로나)의 미드필드 삼각편대가 허리를 장악하고 다비드 비야(바르셀로나)-페르난도 토레스(리버풀)-안드레스 이니에스타(바르셀로나)의 공격 삼각편대가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방식으로 결승진출에 성공했다.

특히 호안 캅데빌라-카를레스 푸을-헤라르드 피케(바르셀로나)-세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의 포백 라인에 6경기에서 단 2골만 내줄 정도로 완벽한 수비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다.

다만 5골을 넣은 비야에게 너무 의존하는 공격력과 좀처럼 골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토레스의 부진이 결승전을 앞둔 스페인의 고민이다. /연협뉴스



비센테 델 보스케 스페인 감독

결승전 ‘승자 독식’

MVP 골든볼·득점왕 골든슈 놓고 스네이더르·비야 마지막 대결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 결승은 이긴 쪽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말 그대로 ‘승자 독식’의 경기가 될 전망이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모두 아직 월드컵 우승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국의 명예를 짊어진 전사들의 결투 속에 스페인의 다비드 비야(FC바르셀로나)와 네덜란드의 베슬레이 스네이더르(인테르 밀란)는 개인적인 영예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비야와 스네이더르는 이번 대회에서 나란히 5골씩 넣어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따라서 12일 새벽 3시 30분(한국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결승에서 골을 넣는 쪽이 이번 대회 득점왕에 더 가까워

진다. 3-4위전에 나가는 토마스 뮐러, 미로슬라프 클로제(이상 독일), 디에고 포틀란(우루과이)이 네 골로 역전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비야와 스네이더르가 한발 앞서 있어 유리하다. 또 비야와 스네이더르는 골을 넣어 팀을 우승으로 이끌 경우 대회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골든볼 수상도 사실상 예약하게 된다. 결국 이기는 쪽이 우승컵과 함께 골든볼, 골든슈를 독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비야는 남아공월드컵에서 스페인이 넣은 7골 가운데 5골을 혼자 책임졌을 만큼 비중이 절대적이다. 비야의 발끝이 폭발해줘야 한결 수월한 경기를 할 수 있다. 독일과 준결승을 승리하고서 비야는 “우리는 결

승에 오를 자격이 있는 팀이고 이 이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세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 중인 스네이더르는 해결사 능력이 돋보인다. 5골을 모두 후반에 넣으며 네덜란드의 이번 대회 6연승을 주도했다. 우루과이와 4강에서 1-1로 앞선 후반 2-1을 만드는 득점포를 가동했던 스네이더르는 “6연승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한 경기가 남았다”며 전의를 다졌다.

베틱업체 윌리엄힐은 스페인의 우승 배당률을 11/10으로 책정해 네덜란드의 13/5보다 가능성을 높 것으로 내다봤다. 득점왕 경쟁 역시 비야가 8/11로 스네이더르의 5/2에 비해 앞섰다. /연협뉴스

축구 실력은 잘 생긴 순?

인터넷 사교 사이트 설문, 스페인 1위·네덜란드 2위

‘잘 생긴 것들이 축구도 잘하네’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 결승에서 맞붙게 된 네덜란드와 스페인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출전한 32개 나라 대표팀 가운데 잘 생긴 순서로 따져도 1.2위를 다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사교(社交) 사이트인 ‘뷰티풀피플’에서 전 세계 네티즌을 상대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외모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스페인은 평점 5.77점으로 1위, 네덜란드가 5.73점으로 2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이트는 전 세계 190개 나라에서 6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회원이 되려면 일정한 외모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네티즌들의 평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20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32개 나라 선수들의 외모 평가를 보면 스페인과 네덜란드 외에 5점대를 받은 나라는 이탈리아(5.22점), 미국(5.18점), 브라질(5.09점), 독일(5.05점)이 있었다.

북한과 한국은 꼴찌를 다했다. 북한이 본선 출전국 32개국 가운데 32위(3.19점)에 자리 잡은 가운데 한국은 31위(3.39점)에 머물렀다. 일본은 25위(3.78점)에 올라 한국과 북한에 비해 외모가 나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개인별 점수를 보면 페르난도 토레스(스페인)가 7.73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포르투갈)가 7.52점, 요안 구르퀴프(프랑스) 7.15점, 카카(브라질) 7.13점 등의 평점으로 ‘글로벌 꽃미남 스타’로 공인받았다. 안정환(다렌)이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3.82점)를 받았고 김형일(포항)이 3.64점으로 그 다음이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스페인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카를레스 푸을(3.97점)만 못하다.

‘못생긴 선수’ 1위에는 라피크 사이피(알제리)가 올라 있다. 앤드리 토마스(온두라스)가 뒤를 이었다.

축구 실력으로는 세계 정상급인 노랑워 카누(나이지리아) 2.93점, 앙헬 디마리아(아르헨티나) 3.01점, 프랑크 리베리(프랑스) 3.04점, 웨인 루니(잉글랜드) 3.15점 등은 모두 ‘못생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협뉴스

Larg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columns of text, likely for a recruitment or service company.

Advertisement for '시원문집' (Siwonmunjip) featuring a logo and contact information.